

유도 기원설 진원운(陳元贇)을 통한 중·일 무술교류 비교연구

차윤선(경희대학교 박사과정) · LIU XIAOYI(경희대학교 석사과정)
· 조성균*(경희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진원운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헌분석을 통하여 유도 기원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유도의 근대적 발전과정에서 진원운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기술된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유술의 시조설에서 공통된 점은 유술을 에도시대에 확립된 새로운 유형의 격투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무술이었던 스모에서 비롯되어 시대적 배경에 따라 격투술의 모양새를 갖다가 에도시대에 각 유파가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때에 왕도원(王道元) 시조설을 제외한 각 시조설은 나름대로의 유파에서 원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진원운은 1587년 중국 절강성 여향현에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난 중국학자이며, 1626년에 일본에 가서 중국 권법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생애사를 살펴보았을 때 무인보다는 문인의 삶을 영위했으며 무도보다는 예술과 한문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진원운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증적인 사실에 입각했다기 보다는 구전과 단순 인용에 근거한 재생산 자료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그가 과연 권법에 얼마나 정통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보았을 때, 일본 유도사에서 진원운의 존재는 유술발전 과정의 중요한 시기에 등장한 근대 유술의 중흥의 조력자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유도, 유술, 진원운, 중국무술, 권법, 기토류, 유도기원설

* beomhong@kh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7세기 초부터 널리 쓰이게 된 유술은 일본 고유의 독특한 신체기술에 삼략과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를 정비해가다가 서양문화의 도입으로 쇠퇴의 일로를 걸었으나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 1860 ~ 1939)에 의해 유도라는 스포츠로 집대성되었다(유성연, 2009). 유도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내세워질 수 있는 바탕으로 기원설 주장이 이어져 오기도 하였으나, 국제화와 세계화의 주도적인 작업을 일본 유도연맹이 중심이 되어 시도하였다는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충분히 공인받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Sports Click, 2006; 유성연, 2009). 이렇게 현재 일본 전통 무도로 알려진 유도는 근대화 이전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권법과 비슷한 기술적 내용이 존재한다.

유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20세기 들어서 일본에서 다양한 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下川潮, 1921). 그 중 하나가 중국의 학자인 진원운(陳元贇, 1587~1671)¹⁾의해 서 전달되었다는 설인데, 진원운은 당시 무술뿐만 아니라 예술, 서예, 사상에 걸쳐서도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오랫동안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고마쓰바라 토(小松原涛, 1972)의 저서 “진원운의 연구(陳元贇の研究)”를 통해 진원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진원운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진원운의 기원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지만(笠尾恭二, 2019), 진원운이 일본 유도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山本義泰, 1994).

1) 한국, 일본, 중국 각 나라에서 읽는 법이 진원빈, 진원운 등 복수로 존재하는데 이는 에도시대부터 여러 독음으로 읽혀온 배경이 있다. ‘贇’자는 본래 중국어 병음이 'yūn'으로 'bīn'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선행연구에서 진원빈으로 읽히며 한자를 '贇'으로 표기하는 오류도 발생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진원운이 중국인인 만큼 중국어 병음표기에 입각하여 진원빈이 아닌 '진원운'으로 표기되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국무술의 역사와 일본과 중국의 무술교류사까지 정리한 중국무술사대관(中國武術史大觀: 笠尾恭二, 2019)에서도 유도의 진원운 시조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진원운을 통한 일본과 중국의 무술교류에 대해서는 유도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양국간의 무술교류의 역사에서 배제할 수 없는 진원운이지만, 그의 무술교류 관련 업적에 관한 연구는 여타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중국과 일본 양국의 연구를 비교하면서 진원운의 유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원운의 일본 유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문헌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그의 업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동양무예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실제적인 문헌분석을 통하여 유도 기원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여 향후 보다 명확하게 동양무예사적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16-17세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유도의 기원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선행연구를 다시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의 무술교류에 있어서 큰 입지를 가진 진원운의 생애사를 포함한 무술관련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무술교류 비교연구의 객관적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유도의 발달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진원운의 생애와 유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당시 중국전통무술의 전파가 일본에서 유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본과 중국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16-17세기에 유술의 형태로 발전하고 이후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 1860~1939)에 의해 유도라는 스포츠의 형태를 갖추게 된 유도 기원설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유도의 기원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그중 한때 매우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진원윤이라는 인물에 대해, 현재 중국 및 일본에 존재하는 많은 관련자료들이 인용하고 있는 일본학자 고마쓰바라 토(小松原涛)의 “진원윤의 연구(陳元贊の研究)”에 나온 연보를 토대로 진원윤이라는 인물을 생애사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다재다능한 학술적 배경의 근원을 찾아보았다.

셋째, 진원윤이 유도의 시조라 일컬음이 된 배경과 무술교류에 있어서 진원윤의 존재가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II. 유도의 기원설

유도의 원류라 불리는 일본유술은 본래 메치기, 꺾기(관절기), 조르기, 찌르기, 차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전용 격투술이었으며, 에도시대에는 무사 계급의 상식으로서 유술의 각 유파는 검과 창 등의 무기술도 함께 익혔다. 가노 지고로는 메이지 시대에 이 유술에서 위험한 기술을 배제하고 메치기 기술 중심의 겨루기 스포츠로서 유술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격투술을 단순한 무술이 아닌, 정력선용(精力善用)과 자타공영(自他共榮)을 목적으로 한 인간수양의 도로 삼아, 그 명칭을 “유도”로 정하였다(笠尾恭二, 2019).

유도의 전신인 유술은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는 “야와라”라고 주로 불리어 왔으며, 처음에는 “和”로 시작하여 “柔”, “拳”, 그리고 “柔術道”로 그 명

칭 및 표기법이 변화되었다(笠尾恭二, 2019).

유술의 기원에 관련해서는 크게 4개 설이 있다. 첫째는 진원운(陳元贇) 시조설이다.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코쿠쇼지(国正寺)²⁾에서 진원운이 일본 무사 후쿠노 마사카쓰(福野正勝), 미우라 요시토키(三浦義辰), 이소카이 지로(磯貝次郎)에게 권법과 격투기를 전수하였고, 이후에 3명의 무사가 각각 유파를 형성하여 유도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유성연, 2009)는 설이다. 둘째는 세키구치 우지무네(関口柔心) 시조설이다. “세키구치류(関口流)”의 시조인 세키구치 우지무네(1597-1670)는 각종 무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체험하며 “柔”라는 새로운 격투기를 통합 발전시켰다(潘冬, 马廉祜, 2011). 셋째는 왕도원(王道元) 시조설이다. 중국 명력년간(明曆年間) 1655-1658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거주했던 왕도원의 격투기를 바탕으로 유술이 창립되었다는 설이다. 넷째는 다케우치(竹内) 유파 시조설이다. 일본 덴분(天文)원년에 다케우치 히사모리(竹内久盛)가 일본의 고대 전장 격투기를 이어받아 만든 ‘소구족(小具足)’이라는 이름의 고류파 유술이 그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각 시조설에 공통된 점은 유술을 에도시대에 확립된 새로운 유형의 격투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다. 무술에서 시조를 논할 때에 어느 지점을 시작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각기 논쟁이 존재하겠지만, 현대와 같은 유형의 유도를 만든 시조가 가노 지고로라는 것은 많은 자료와 선행연구들로 인해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다. 가노 지고로로 인해 유도로 집대성되기 이전의 형태, 즉 유술의 시조가 어디인지에 대해 4개 시조설이 존재하는 것인데, 현재 일본에서는 그 시조를 고대로부터 존재하는 스모를 원류로 하는 유술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발전되어 왔으며, 에도시대에 이르러 각 유파가 왕성하게 발달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 가노 지고로로 인해 지금의 형태의 유도로 변경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山本義

2) 코쿠쇼지(国正寺: 국정사)는 1657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어, 위치를 다카나와(高輪)로 옮겨 새로 지어지면서 한자가 国昌寺(국창사)로 바뀌었다(笠尾恭二, 2021). 일본어 발음은 동일하게 ‘코쿠쇼지’이다.

泰, 1994). 시기적으로 다케우치류의 소구족이 좀 더 앞서 있기도 해서 에도시대에 다양하게 등장한 유파를 시조로 볼 때 다케우치류를 시조로 보는 학자들이 많으며, 진원윤(陳元贇)과 세키구치 우지무네(関口柔心)에 대해서는 당대에 영향력 있는 유파의 시조로, 왕도원에 대해서는 나가사키에 중국무술을 가져온 역사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笠尾恭二, 2019).

왕도원이 시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하다. 왕도원은 명력년간(明曆年間: 1655-1658)에 나가사키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세키구치 우지무네 등의 무술가가 활약하고 있었고 진원윤 또한 이미 60대의 나이로 나고야에서 문인으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시대적으로 유술의 등장 시기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에도시대의 무술가 사이에서는 나가사키에서 중국무술을 배웠다는 전승이 적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된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서 왕도원에 대한 기술은 가치가 있다(笠尾恭二, 2019).

세키구치 우지무네(関口柔心)에서 시작된 세키구치 유파는 당초 스스로 유술을 자신의 유파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세키구치 유파의 전통을 기술한 우즈마사 부쿄(太秦武郷)의 “柔話(유화)”에서도 본문에는 “야와라(柔)”가 세키구치 우지무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은 그가 수련하던 시절 이미 “야와라(柔)”라는 명칭은 존재하였다고 주석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키구치 우지무네가 유술의 시조로 일컬어지게 된 데에는 우케미(受身)³⁾를 창시했다는 배경이 있다. 우케미를 통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신체에 부담이 덜 가게끔 반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술계의 방향성을 전환하였고, 이로써 오래된 체술(体術)에서 탈피하고 현대 유도의 모습에 가깝게 발전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山本義泰, 1997).

분카(文化) 2년(1812)에 편찬된 우즈마사 부쿄(太秦武郷)의 “紀藩柔咄集(기번

3) 세키구치는 고양이와 지붕에서 떨어지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 이후 스스로 수련을 통해 우케미(受身: 낙법)를 만들어냈다는 일화가 전승되어오고 있다.

유돌집)”에서 세키구치유파가 중국권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맥락의 기술이 있어 이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이는 분카(文化) 연간(年間) 당시에 중화사상 숭배의 풍조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자인 우즈마사가 일부러 유파를 포장하기 위해 기술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무술의 특징은 동양의학에 따른 경혈(經穴), 경로(經絡)를 기초로 한 지르기(打ち), 찌르기, 차기 등이 특징인데 세키구치류에는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만한 기술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山本義泰, 1997).

현재 유술의 시조 격으로 여겨지고 있는 다케우치(竹内) 유파는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대에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대 스모(相撲)에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에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일본의 도수공권(徒手空拳)의 격투기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힘겨루기 각력⁴⁾으로 존재하던 격투기가 발달하여 행사적 성격이 강한 세쓰에스모(節会相撲⁵⁾)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가마쿠라(鎌倉)시대에 들어 무사(武士)계급이 등장하고, 긴 세월 동안 서민들 사이에서 즐겨오던 스모는 또 다시 격투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면서 그 중심이 서민에서 무사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무사의 스모는 전쟁(戰場)에서 목숨을 건 구미우치(組討⁶⁾)로 발전하였다. 구미우치는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구미우치에서 필승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메치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메친 후에는 꺾고 조르는 등을 하여 상대를 포박하고 제압하는 기술을 훈련하였다. 이 훈련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다케우치류로 대표되며 고구소쿠(小具足), 고시노마와리(腰之廻)라고 불리는 원유술이다. 이 원유술이 武藝十八般(무예십팔반)의 각종 무술로 분화(分化)되고 발전되어 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다케우치유파 시조설이다(山本義泰, 1994).

이 유파의 시조인 다케우치 히사모리(竹内久盛)는 한 때 센고쿠(戰国) 시대에

4) 角力: 서로 힘을 겨루는 것

5) 천황이 전국의 역사들을 모아 씨름을 하게하고 이를 관람하는 연례행사

6) 전쟁(戰場)에서 적을 쓰러뜨리고 포박하여서 그 목을 자르는 행위

뛰어난 장군으로 활약하였으나 덴쇼(天正) 8년(1580)에 패배를 맞은 이후 무술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평생 동안 아들과 함께 다케우치 유파의 완성에 매진하였고 그 업적은 “일본유술의 원류·다케우치류(日本柔術の源流・竹内流)”라는 서적으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진원윤은 어떻게 일본 유술의 시조설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진원윤의 생애

진원윤은 1587년 중국 절강성 여항현(中國浙江省余杭縣)에서 태어났다. 여항현은 절강성 항주(浙江省杭州) 옆 마을로 현재는 항주시 여항구(杭州市余杭區)이다. 본명은 옥(琬), 자는 의도(義都), 사승(士昇), 상승(上昇), 그 외에 원운(元贇), 승암(升菴), 공동자(崆峒子). 지산도인(既白山人), 호백도인(虎魄道人), 영호일사(瀛壺逸史), 국수현운(菊秀軒云), 동영자(東瀛子), 일수(逸叟), 현향재(玄香齋), 지산(芝山) 등의 별호 및 필명이 있다(劉家幸, 2021; 陶惠寧, 2006).⁷⁾

그의 아버지는 명문가 출생으로 아들 또한 진사로 등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진원윤은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이후에 중용을 교재로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골지를 이 시기에 익힌 것으로 추정된다(山本義泰, 1994).

이렇게 일찍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진원윤은 신종만력(神宗萬曆) 32년(1604) 진사 시험에 응시했는데 낙방하고 만다. 이는 1857년에 일본에서 쓰인 오와리명가지(尾張名家誌)에서 언급하고 있다.⁸⁾ 중국의 진사는 조선의 진사와 달리 과거

7) 陳元贇本名琬，字義都，又作士昇，上昇，還有元贇，升庵，崆峒子。既白山人，虎魄道人，瀛壺逸史，菊秀軒雲，東瀛子，逸叟，玄香齋，芝山 等別名。

8) 원문 참조: 陳元贇 字義都、既白と号す。又、菊秀軒・芝山・升菴等の号あり。明国虎林の人。崇禎中、進士に下第す。後、乱を避け投たす。遂に辟に応じて尾張に抵る。或は京に入り又江戸の如しと諸名士と交う。(注: 한문원문에 하라가

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뜻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과 동시에 고위관료 임용이 보장된 고위 신분이었다. 그만큼 시험은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낙방하더라도 일부 합격만으로도 존중을 받았다. 진원운이 어느 시점에서 낙방했는지까지는 언급이 없으나, 그 합격 여부에 대해 양설이 존재(山本義泰, 1994)하는 걸로 판단할 때 도중 단계에서 낙방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학자 충이거(衷尔矩)가 편찬한 진원운의 연보간편(陳元贊年譜簡編)에도 진원운은 일찍이 수당(隋唐) 시대부터 청대(清代)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관리 등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제하여, 27세에 소림사에 들어가 1년 남짓 무예를 익혔다(周伟良, 2017 재인용)고 적혀있다.

시험에 떨어진 진원운은 실의 속에서 허송세월하다가 明神宗万曆(명신종만력) 41년(1613), 그의 나이 27세에 소림사에 입산한다. 그곳에서 역근경(易筋經)을 기본으로 한 호흡법, 막론(膜論), 근론(筋論), 골론(骨論)을 배웠다. 무술 외에도 경(經), 서예(書), 도예(陶), 의학(醫), 약학(藥) 등의 다양한 지식을 소림사에서 익혔다(本地屋, 2021). 明神宗万曆(명신종만력) 42년(1614) 진원운은 1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소림사를 하산한다.

단, 이 소림사 입산에 대해서는 1899년에 소림사 승이 된 나카지마 케이쇼우(中島圭祥, 1878~?)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이며 나카지마는 본래 관심이 있던 진원운에 대해서 같은 소림사에 입산하게 된 것을 계기로 조사하였다고만 고마쓰바라토(小松原涛)의 “진원운의 연구(陳元贊の研究)”에 언급되어 있다. 나카지마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일절 남아 있지 않은 만큼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笠尾恭二, 2019).

소림사에서 하산한 후에는 여항(余杭)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이전에 관심 있게 배웠던 도교(道教)에 다시 심취하여 철학적인 측면에서 자기 계발을 하였다. 진원운은 소림사 입산을 통해서 무술과 문화적인 요소를 터득하였으나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소림사 하산 이후에 도교에 심취함으로써 내실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山本義泰, 1994).

나를 더해서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한 것)(笠尾恭二, 2019)

겐와(元和) 5년(1619) 가을, 진원윤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상인으로서 처음 입국하게 된다. 첫 입국은 단기 체류 후 조기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질병을 앓게 되면서 귀국할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위해 서예를 가르치면서 일본에 머물렀다. 그 후 한 차례 중국으로 귀국하고 겐와(元和) 7년(1621) 가을 이번에는 ‘방언에 능하고 권법을 겸선한다(能嫻邦語, 兼善拳法)’는 이유로 사절단의 임시 통역관으로서 다시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입국하였다(李强, 2011; 耿海潮, 2019). 이후 진원윤은 귀국하지 않고 그해 겨울 당시 장군인 모우리 테루모토(毛利輝元)를 알현하고 모우리가의 식객이 되었다. 여러 장군들 앞에서 시를 읊으며 식객살이를 하다가 칸에이(寬永) 3년(1626) 8월에 니시쿠보(西久保) 코쿠쇼지(国正寺)에서 후쿠노(福野), 미우라(三浦), 이소카이(磯貝), 승인 큐엔(久円) 등에게 권법을 전수하였다. 이듬해, 칸에이(寬永) 4년(1627) 9월에 이곳을 나온 이후로는 무술과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小松原涛, 1972).

이후에는 당대의 저명한 학자, 문인, 종교가, 의사, 예술가 등과 친목을 다지며, 시, 서예, 건축, 도예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사상도 익히는 등 예술과 학문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는 번주(藩主)⁹⁾로부터 평민(平民)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吳敏, 2020). 그리고 칸분(寬文) 11년(1671) 6월9일에 나고야(名古屋) 구십현정(九十軒町) 자택에서 85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小松原涛, 1972).

IV. 진원윤을 통한 중일 무술교류

1. 진원윤의 등장

중국에서 진원윤이 알려진 것은 최근이다. 1994년에 중국학자 충이거(衷尔钜)

9) 에도(江戸)시대의 정치적 영토 구분인 번(藩)을 다스리는 영주

는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된 자료로 진원운집(陳元贇集)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진원운의 생애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周偉良, 2017 재인용). 진원운집에는 주로 진원운의 생애가 기재되었고, 문학 측면에서 원원창화집(元元唱和集), 승암시화(昇庵詩話), 장문국지(長門國志), 노자경통고(老子經通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束尔钜, 1994). 충이거(束尔钜)는 중국에서 최초로 진원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로서, 실제로는 진원운집에 쓰인 내용도 일본학자 고마쓰바라 토(小松原滄)의 “진원운의 연구(陳元贇の研究)”에 나온 연보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 서적을 통해 중국학자들은 일본 유도에 큰 영향을 준 진원운이라는 존재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耿海潮, 2019 재인용). 이후에 중국학자들도 진원운의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진원운이 당대에 일본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술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렇듯 일본에서 먼저 알려진 진원운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97년, 가이바라 요시후루(貝原好古)가 쓴 “大和事始(대화사시)”에서 이다. 시대적으로 “大和事始(대화사시)”가 먼저 쓰여졌으나 실질적으로 진원운의 존재를 처음 알린 것은 “本朝武芸小伝(본조무예소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적은 일본 무술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주요인물의 약력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도 무술유파연구의 귀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本朝武芸小伝(본조무예소전)”의 ‘拳(권)’이라는 제목의 제10권에서 유술기원론을 언급하면서 진원운에 대한 기술이 등장한다. “大和事始(대화사시)”에도 동일하게 쓰여진 본문은 아래와 같다.

“拳法秘書曰く、今世に所謂 柔術 是也。武備志に是を拳といふ。古是を手搏と云。日本に始る事は、近世陳元贇と云もの我国に來り居て、江戸淺府の国正寺に寓す。又浪人に福野七郎右衛門、磯目次郎左衛門、三浦与次右衛門といふものおなじく彼寺に寓居して衆寮に有しが、元贇かたりて、大明に

人をとらふる術あり、我其術をしらずといへども能其技をみつと云。右三人の士、其術を聞、みづから其技を工夫し出して、後能其事に熟せり。凡柔のおこりは右三人より伝りて諸方にあまねし。此術の理は柔にして敵とあらそはず、しばしば勝ん事を求めず。虚静を要とし、物をとがめず物にふれ動かず、事あれば沈で浮ばず沈を感じると云。凡調息を要とす。” (広谷雄太郎, 1925 재인용)

원문의 시작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拳法秘書(권법비서)”라는 서적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拳法秘書(권법비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어느 시절에 누구에 의해 쓰인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해설문에서 진원윤은 코쿠쇼지에서 만난 후쿠노 시치로우에몬(福野七郎右衛門), 미우라 요지에몬(三浦与次右衛門), 이소카이 지로사에몬(磯貝次郎左衛門)에게 명국의 격투술의 일부를 들려주었고, 이들은 이를 듣고 유술을 발달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본문에는 진원윤이 가르친 격투술에 대한 내용은 물론 진원윤에 대한 언급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笠尾恭二, 2019).

이 후에 등장한 하라 넨사이(原念齋)의 “先哲叢談(선철총담)”도 진원윤 유술 시조설을 널리 알린 서적이다. 이 서적에서는 진원윤을 무술가로 서술하고 일본 권법의 시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학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本朝武芸小伝(본조무예소전)”의 백년 후에 등장한 서적으로서 단순히 “本朝武芸小伝(본조무예소전)”의 기술을 근거로 살을 붙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笠尾恭二, 2019).

그러나 이 서적은 에도시대 후기에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고, 이 때문에 진원윤의 유술시조설이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에는 진원윤이 무도를 가르쳤거나 무술에 대해 설명하였다거나 하는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2. 진원운의 시조설

1972년, 고마쓰바라 토(小松原濤)가 “진원운의 연구” 라는 서적을 출간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떠돌던 진원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진원운에 대해 생애사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이후 진원운과 관련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되었다. 이 자료에서 진원운의 무술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많은 중국 및 일본 학자들의 학술적 토대가 되었다.



출처: 진원운의 연구(陳元贇の研究)

그림 1. 고마쓰바라 토(小松原濤)의 저서

진원운 시조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가 덴진신요류(天神真楊流)와 기토류(起倒流)를 토대로하고 있는데, 이 기토류가 진원운의 가르침을 받은 후쿠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흐름은 도쿄(東京) 아타고신사(愛宕神社)에 세워진 비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拳法(권법)이 전해진 것은 일본으로 귀화한 명국인(明國人) 진원운(陳元贇)



그림 2. 起倒流拳法碑(기도류권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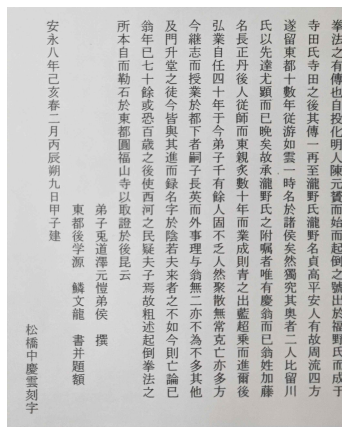


그림 3. 起倒流拳法碑(기도류권법비)
비문전문

에서 시작된다. 起倒(기도)라는 명칭은 후쿠노(福野)로부터 시작되어서 테라다(寺田) 때에 완성되었다. (중략) 이렇게 起倒流拳法(기도류권법)의 유래를 대략적으로 적어서 돌에 새겨 에도(江戸)의 円福山寺(원복산사)에 세움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이를 증거로 삼으려 한다.(李麗, 2017)”

각 유파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에서 중국 무술인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18-19세기경 일본 내에서 중화사상을 숭배하는 풍조가 있어 일부러 당대 저명한 문인이었던 진원윤의 이름을 빌려 유파의 격을 높였다고 보는 시선도 있으나, 실제로 진원윤이 후쿠노와 만나 교류하였다는 자료로 미루어 후쿠노가 진원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진원윤은 코쿠쇼지에서 후쿠노 시치로우에몬(福野七郎右衛門)에게 중국무술 권법을 가르쳤고 후쿠노(福野)는 본인이 터득하고 있던 유술과 진원윤의 가르침을 엮어서 후쿠노 유파를 창시하였다. 그 후 후쿠노의 제자들이 유파를 발전시켜 일본에서는 다양한 유파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이 유술에서 유도로 발전하는 데에 공헌하였다(楊向东, 钟嘉奎, 张雪梅, 2006; 李晓燕, 2008; 李强, 2011; 王广西, 2021)라는 내용은 중국의 많은 진원윤 관련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 의거해서 진원윤이 일본인에게 ‘유도의 시조’로 불렸다는 표현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李曉燕, 2008; 本地屋, 2021).

중국학자 경해조(耿海潮)는 2016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일본 도쿄(東京)와 나고야(名古屋)를 직접 탐방하고 현지답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1964년 첫 아시아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유도가 채택되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유도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유도의 시초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중국 명나라의 진원윤이라는 학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경해조(耿海潮)는 문헌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해 진원윤이 ‘유도의 시조’인지를 검증을 하였고, 기도류(起倒流)의 창시자인 후쿠노에게 중국무술권법을 전수하였다는 점, 넨사이(原念齋)의 “先哲叢談(선철총담)”에서 진원윤을 권법의 시작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충이거(衷爾矩)의 “진원윤집(陳元贇集)”에서 진원윤을 유도의 시조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현지답사결과 진원윤을 통해 유술이 시작되었다는 비문¹⁰⁾의 존재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진원윤은 유도의 시조임을 재확인하였다(衷爾矩, 1994).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후쿠노에게 무술권법을 전수하였다고 하기에는 구술로 격투술의 일부를 들려주었을 뿐 가르쳤다고하기에는 그 근거가 될 만한 문서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넨사이(原念齋)의 “先哲叢談(선철총담)” 또한 백 년 전 서적인 “本朝武芸小伝(본조무예소전)”의 서론에 등장하는 문장을 실증적인 검증 없이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는 점, 그리고 비문은 18-19세기경 일본의 중화사상을 숭배하는 풍조에 영향을 받아 언급되었을 뿐이라 여기는 시각이 있는 점 등 경해조(耿海潮)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모두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존재하며 실증적인 측면에서 약하다.

이렇듯 문서자료로는 진원윤의 시조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일

10) 현재 진원윤과 관련하여 일본에는 세 개의 비문이 존재한다. 도쿄(東京) 아타고신사(愛宕神社)의 起倒流拳法碑(기도류권법비), 도쿄(東京) 쇼산지(正山寺)의 陳元贇先生之碑(진원윤선생의비), 그리고 나고야 평화공원묘지 내의 묘비이다.

본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케우치 유파 시조설을 부인함으로써 진원윤을 지지하는 학자도 있다.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로 인해 유도는 짧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격투술로 확장되어, 맨손과 짧은 기구를 같이 사용하는 격투술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일부 중국학자들이 다케우치 유파가 공개한 현재 기술 및 사용 기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짧은 기구뿐만 아니라 긴 기구도 포함되어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격투술은 유술의 정의에 어긋남으로 시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潘冬, 馬廉禎, 2011). 그러나 이러한 시도 또한 진원윤의 시조설을 뒷받침하기에는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이 고려되지 못한 주관적인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 진원윤이 무술을 얼마나 전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자료를 통틀어 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를 통해서도 거의 밝혀진 바가 없어서 다른 유파가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진원윤 시조설이 타당하다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3. 진원윤 문인설

진원윤은 코쿠쇼지(国正寺)에서의 가르침으로 인해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本朝武芸小伝(본조무예소전)”에 따르면 이는 구술에 의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무술을 시범하고 가르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무술과 관련된 문헌도 문학 서적이 여러 권 쓰인 것에 비해 신기할 정도로 찾아볼 수가 없다.¹¹⁾ 이 때문에 진원윤은 무인이라 할 수 없고 문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주위량(周偉良)은 2017년 본인의 연구에서 진원윤이 소림사에서 무술을 익혀 일본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소림사에 기거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중국정통무술을 얼마나 배울 수 있으며, 일본에서 무인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11) 진원윤의 저서로는 元元唱和集(원원창화집), 昇庵詩話(승안시화), 長門國志(장문국지), 老子經通考(노자경통고)가 있다.

현재 진원운에 관련된 기초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진원운이 무술에 능하다는 기록은 거의 없으며 권법과 유술의 발전사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는 실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当身(당신)¹²⁾’, ‘活殺(활살)’ 등의 유도 관련 단어도 중국문화보다는 일본문화의 색채가 짙은 표현이라고 주장한다(周伟良, 2017).

실제로 진원운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무술교류 보다는 문인으로서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점을 다룬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본인 스스로 여러 서적을 집필하고 있는 데에 반해 무술과 관련하여서는 식질적으로 기술 등에 관련된 그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기에 주위량(周伟良)의 이러한 주장 또한 일개 학자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있다.

문하생으로 알려진 3명의 무술가, 후쿠노 시치로우우에몬(福野七郎右衛門), 미우라 요지에몬(三浦与次右衛門), 이소카이 지로사에몬(磯貝次郎左衛門)도 당대에는 이미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던 무술가들로서, 문하생으로서 배웠다기보다는 진원운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각자가 새로운 유파의 유술을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下川潮, 1921; 笠尾恭二, 2021).

앞서 고마쓰바라 토(小松原涛)가 쓴 “진원운의 연구”라는 서적을 진원운 시조설을 지지하는 자료로 소개하였으나 이 서적의 부록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前略)少林寺入山拳法家中島圭祥翁との数次会談するに及び、元贇少林寺訪山の事実ありとの断言を実証的に打破できぬ限り、陳元贇が拳法家であるという所説を肯定する立場をとった次第である”

12) 일본어로는 ‘아테미(当身)’라고 읽으며, 무술에서 급소를 찌르거나 차는 등 하여 공격하는 기술의 통칭이다.

위 원문은, “나카지마¹³⁾와의 면담 이전에는 저자인 고마쓰바라도 처음 등장한 서적(本朝武芸小伝)에 쓰인 바와 같이 진원윤에 대해 그는 무술가가 아니고 단지 무술에 대해 본 것을 읊어주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나카지마와 면담을 갖게 되면서 그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타파하지 못하는 이상 진원윤은 권법가라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부록에는 진원윤의 주 활동 무대였던 오와리번(尾張藩)의 자료에 진원윤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으나 무술에 관해서는 신기할 정도로 일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고도 쓰여 있다. 이러한 부록의 언급에 대해 가사오 료지(笠尾恭二)는 그의 저서 중국무술사대관(中國武術史大觀)에서 고마쓰바라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찻찻함이 남았기에 굳이 부록으로 언급하여 진원윤이 무인으로서 수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이를 부인할 수 없었던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도리어 나카지마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증거가 없는 이상 고마쓰바라는 진원윤이 권법가라는 입장을 취하면 안됐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笠尾恭二, 2019).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근대의 일본 유술의 발달과정에서 당시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중국학자 진원윤을 중심으로 그 생애를 살펴보고 실제적인 문헌분

13) 나카지마 케이쇼(中島圭祥)는 메이지시대 말기에 중국혁명을 도운 일본인 지사(志士) 중 한 명으로 메이지(明治) 32년(1899)에 소림사에 입산하여 권법을 배우며 진원윤의 발자취에 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나카지마의 주장일 뿐 물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석을 통하여 유도 기원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술의 시조설은 크게 4개설이 있는데 각각에 공통된 점은 유술을 에도 시대에 확립된 새로운 유형의 격투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무술이었던 스모에서 비롯되어 시대적 배경에 따라 격투술의 모양새를 갖다가 에도시대에 각 유파가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때에 왕도원 시조설을 제외한 각 시조설은 나름대로의 유파에서 원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빠른 시점에서 전파된 다케우치 유파를 시조로 볼 수 있으며, 세키구치유파는 우케미(受身)를 창시하면서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방향의 유술을 이끌어 내었다.

둘째, 유술의 시조설 중 하나로 여겨지는 진원운설의 주인공, 진원운은 1587년 중국 절강성 여항현에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난 중국학자로, 진사시험 공부를 위해 일찍부터 사서오경을 익혔다. 하지만 진사시험에 낙방 후 소림사에 입산하여 1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권법의 숙련도에 대해서는 언급된 문헌이 없다. 1626년에 코쿠쇼지에서 후쿠노(福野), 미우라(三浦), 이소카이(磯貝) 등에게 권법을 전수하였고, 이듬해에 코쿠쇼지를 떠난 이후로는 무도와 인연이 없었다. 이후에는 예술과 한문을 익히고 가르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리고 1671년 6월 9일에 나고야의 자택에서 85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그의 생애사를 살펴보았을 때 무인보다는 문인의 삶을 영위했으며 무도보다는 예술과 한문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진원운의 시조설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발전과정에 대한 자료보다 글로 언급된 문서자료에 기인한 것이 많으며, 그 시조는 “拳法秘書(권법비서)”라는 서적에 언급되었다는 내용이 “大和事始(대화사시)”와 “本朝武芸小伝(본조무예소전)”에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진원운이 에도의 코쿠쇼지(国正寺)에서 후쿠노 시치로우우에몬(福野七郎右衛門), 미우라 요지에몬(三浦与次右衛門), 이소카이 지로사에몬(磯貝次郎左衛門)에게 알려진 권법내용이 유술의 시조가 되었다는 문장

은 이후 많은 서적과 연구물에서 인용되면서 널리 퍼져 일부 기정사실화되었다. 하지만 실증적인 검증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진원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일본의 고마쓰바라 토(小松原涛, 1972)의 “진원윤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서나 일본 자료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진원윤에 대한 연구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실증적인 사실에 입각했다기 보다는 구전과 단순 인용에 근거한 재생산 자료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진원윤이 얼마나 뛰어난 무술가였는지, 과연 권법에 정통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런 뜻에서 사쿠라바 다케시(桜庭武)나 마루야마 산조(丸山三造) 또한 각 저서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유술의 기원은 고대격투기로서 스모(相撲)의 전통을 계승하여 직접적으로는 무사(武士)계급에서의 전장격투술(戰場格闘術)에서 발전한 것으로 진원윤(陳元贇)뿐만 아니라 다케우치류(竹内流) 세키구치류(関口流) 또한 역사적으로는 상대적인 위치로 보는 시각이 현재 가장 타당하다. 일본 유도사에서 진원윤의 존재는 에도시대에 명나라 무술에 관해 자기 견해를 일본 무술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영향을 끼친 점에서, “유술발전 과정의 중요한 시기에 등장한 근대 유술의 중흥의 시조(山本義泰, 1994)”로 보는 야마모토의 입장을 지지하며, 기술적인 측면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중흥을 이끈 조력자’ 정도가 적당하다 할 수 있다.

2. 제언

유술의 시조를 연구할 때 진원윤이 유독 시조설로 언급되는 데에는 가노 지고로가 텐진신요류(天神真楊流)와 기토류(起倒流)를 토대로 현대의 유도를 창시하였다는 배경이 있다. 이 때문에 기토류의 시조로서 비석까지도 존재하는 진원윤의 존재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다만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원윤의 권법 수련 정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진원윤 등장 전후의 유술의 변화 등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술발달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다. 진원윤의

시조설에 대한 진위여부를 더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발달과정을 연구하고 아와라에서 유술, 유술에서 유도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과 사상의 영향까지도 함께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자료가 미비하며, 아테미(当身)와 살법(殺法)과 같은 인체의 급소를 다루는 점혈기법(點穴技法)은 진원운 이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최종균, 2002)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후쿠노 마사카쓰(福野正勝)가 남긴 良移心当流柔術(양이심당류유술)의 전서(伝書)에 주목하여 진원운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이전과 이후에 유술에 관한 기술(技術)내용에 차이가 없었다며 진원운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주장도 있고, 진원운이 도교에 심취하였음을 들어 유도에 대한 도교의 영향을 진원운과 연관 지어 고찰하는 시각도 있다(笠尾恭二, 2021). 이렇듯 현재의 진원운 시조설은 다수 인용된 문서에만 현혹되어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전일 뿐, 실질적인 분석 및 검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기에 추후 기술(技術)적인 측면에서 더욱 면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덕현(2008). 한중일 무예형태로 바라본 柔術과 柔道. **체육과학연구**, 19(1) 59-68.
- 박경호(2002). **유도기술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유성연(2009). **무도로서 유도문화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유성연(2009). 유술에서柔의 의미와 가노지고로 유도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24(4), 1-11.
- 최종균(2002). 日本武道의 形成過程과 特徵에 關한 研究.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耿海潮(2019). 日本柔道 “鼻祖” 陈元赞考辨. 体育科技文献通报, 27(1), 148-150.
- 劉家幸(2021). 詩心與佛教-晚明渡日華僑陳元贊詩歌釐探. 漢學研究, 39(3), 103-140.
- 李强(2011). 日本柔道正骨整复术的鼻祖——明代诗人学者·少林寺僧陈元赞. 中国中医骨伤科杂志, 19(1), 58-60.
- 李晓燕(2008). 17世纪中日两国的文化交流. 五邑大学学报: 社会科学版, 10(2), 39-42.
- 潘冬, 马廉祯(2011). 论明清之际的中日武艺交流与柔术源流之辩. 成都体育学院学报, 37(12), 24-29.
- 杨向东, 钟嘉奎, 张雪梅(2006). 陈元赞对日本体育文化的贡献. 体育文化导刊, 9, 81-84.
- 吴敏(2020). 明末儒学对日本江户时代的影响. 西部学刊, 126, 89-91.
- 王广西(2021). 少林武功在日本的传播. 少林与太极, 9, 31-33.
- 周伟良(2017). 简论明代武术文化的对外交流--以与日本, 朝鲜为视阈. 中华武术·研究, 6(1), 6-11.
- 衷尔钜(1994). 陈元赞集. 沈阳: 辽宁人民出版社.
- 本地屋(2021.11.08.). 陳元贊. <https://www.bendi5.com/mingren/12016.html>.
- 太秦武郷. 柔話
- 貝原好古(1697). 大和事始.
- 笠尾恭二(2019). 中國武術史大觀 増訂. 国書刊行会, 392-437
- 笠尾恭二(2021). 陳元贊『老子経』. 稲門空手会.
- 原念斎(1816). 先哲叢談.
- 小松原涛(1972). 陳元贊の研究. 雄山閣.
- 桜庭武(1935). 柔道史攷. 目黒書店.
- 下川潮(1921). <研究>陳元贊と柔道の始祖. 史林, 6(2), 205-219.
- 陶惠寧(2006). 陳元贊と日本整骨医学. 日中醫學, 21(3), 26-29.
- 日夏繁高(1716). 本朝武芸小伝.
- 広谷雄太郎(1925). 武術叢書. 廣谷國書刊行會.
- 細野要斎(1857). 尾張名家誌.
- 丸山三造(1939). 大日本柔道史. 講道館.
- 山本義泰(1994). 日本柔道史の中の陳元贊の存在. 天地大学学报, 45(3), 67-72.

山本義泰(1997). 名人達の足跡:関口新心流柔 流祖氏心と三代目氏英. 天地大学学報, 48(3), 25-34.

李麗(2017). 陳元贇の生涯と思想:文献資料などのフィールドワーク調査を中心に. 富士ゼロックス株式会社小林節太郎記念基金, 29-33.

Sports Click(2006). 柔道のルーツは韓国という説の眞偽は. 東京：ベースボールマガジン社

Wikipedia. (2022.9.29.) 陳元贇

<https://ja.wikipedia.org/wiki/%E9%99%B3%E5%85%83%E8%B4%8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tial Arts Exchange between Japan and China through “Chen Yuan-Yun”

Cha, Yoon-Sun · Liu Xiao-Yi · Cho, Sung-Kyun (Kyunghee Univ.)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origin of Judo, this research compares Chinese and Japanese materials about “Chen Yuan-Yun”, a Chinese scholar who is said to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Jujut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ruth of the founder theories Judo through the analysis of documents related to him conducted in China and Japan,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studying the influence of him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Judo. After comparing the materials so far, we were able to obtai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hat is common to the founder theories of Jujutsu is that Jujutsu is defined as a new form of martial arts established in the Edo period. However, considering that Sumo wrestling, which was a martial art unique to Japan, developed into a combative martial art throug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then, and that various schools were born on the Edo period, it can be said that each founder theory is worthy of being the originator of each school. Second, Chen Yuanyun was a Chinese scholar born in 1587 as the son of a prestigious family, and went to Japan in 1626. And it is said that he taught Chinese martial arts there. Looking back on his life, we find that he lived a life of a literary artist rather than a martial artist. Third, most of the research that has been done on him so far is not based on proven facts, and much of the material has been reproduced by word of mouth or simple quotations. As a result, I have found very little documentation on how proficient he was in martial arts and specifically what kind of influence he had on Jujutsu.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hen Yuanyun's position is the assistant of the modern Jujutsu revival, which appeared in an important period of development of Judo.

Key words: Judo, Jujutsu, Chen Yuan-Yun, martial art, the founder theories of Judo

논문투고일 : 2022.09.30.
심 사 일 : 2022.10.17.
심사완료일 : 2022.11.19.